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 구현

시민들의 기대와 선택으로 새출발한지 1년

남원시민들의 기대와 선택으로 새롭게 출발한 제8대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7월 3일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의정 방침으로 정하고 합차게 출발한 제8대 남원시의회 의정활동 성과를 살펴보고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총 9회의 정례회·임시회를 통해 155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1년 간 총 22건의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이 제출·처리해 자치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의원 각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 조례를 직접 연구·성안(成案)했다는데 그 의미가 더욱 크며, 의원 발의를 통해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조례 등이 다수 제정되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두드러졌다.

▲시민을 위한 건전 재정 확립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세밀한 검토를 거쳐 2019년도 남원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확정했고,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승인했으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하는 등 1년간 시 살림살이를 꼼꼼히 점검했다.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건전성 확보를 도모해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건설적 견제·균형 실현을 위한 예리한 감시의 비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단순히 잘못을 추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와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정책방향과 행정운용 방안을 권고하는 등 건설적인 소통의 장을 열었다.

제22회 및 제23회 정례회에서 총5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보다 향상된 행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임시회와 정례회에서 총 44회 실시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각 의원들이 시 행정 전반을 두루 살피고 문제점을 비판했으며, 또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의 적극적인



총무위 현지 답사



경건위 현장 답사

22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어려운 여건 감안 예산 심사 '심혈'

출범 후 의회 역량강화에 '역점'

현장 중심 의정활동 의견 귀 기울여

의회 차원 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

인 조치를 촉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정책의회·전문의회 구현을 위한 의원 역량강화

제8대 남원시의회가 출범 후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 역량강화 노력이다.

시 발전을 이끄는 전문의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의원 개개인의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시정 발전을 견인하는 지방자치의 주동자로 거듭 나고자, 지난 1년간 총 13회의 의정연수와 선진지 견학 등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열린 의회 개원식



의정활동 역량강화 전문 교육



사회복지 실무센터 개소식

조례 제정·심의와 예·결산 검토, 행정 사무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기법 등 내실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단체를 조직하여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정례모임, 벤치마킹, 관련부서 및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활동으로 어느 역대 시의회보다 열정과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바른 민의(民意) 반영을 위한 끊임없는 소통 노력

언론매체와 의정 소식지를 통한 일반적인 홍보는 물론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과의 소통에 더욱 힘을

등을 통해 의회가 실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시민의 뜻이 어떻게 의정활동에 반영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에 봉사하는 섬김 의정 실천

소외계층에 대한 온정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회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며, 국군장병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활동과 각종 봉사활동 등 나눔을 적극 실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인터뷰 윤지홍 의장

1년 전 의원 선서 다짐 기억 늘 새 마음으로 발로 뚫 것

윤지홍 의장은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로 보람찬 1년을 달려왔다."고 개원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이어 "1년 전 8대 의회가 개원하던 날 의원 선서의 다짐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며, 늘 처음처럼 새 마음으로 발로 뚫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 받을 수 있는 의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가자~ 빠지자!
신나는 동화나라
야외물놀이

2019 임실치즈테마파크
아쿠아 페스티벌
2019. 7. 20.(토) ~ 8. 18.(일)

임실치즈 테마파크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전화 063-643-2300 www.cheesepark.kr